

신앙과 설화... 화폭서 빛나는 '서로 다른 서사'

광주시립미술관 '2026 원로·작고작가전'

삶은꼴 많은 김재형 원로·정승주 작고작가
4월 26일까지 제1·2전시실... 70여점 출품
"독자적 회화 세계 구축"... 오늘 개막 행사

"두 분의 공통점은 광주 지역 미술계에서 후학을 양성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 추상 미술의 흐름이 형성되었을 때 이 두 분은 올곧게 구상회화를 고집을 한 점 역시 공통점이겠지요. 물론 원로로 활동 중인 김 교수님은 반추상적으로 가는 경향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구상 미술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해 주셨고요. 작고한 정 교수님의 작업을 따라가면 뭔가 영적인 어떤 내면의 세계나 신의 세계에 다다르게 되는 듯 합니다. 구상 미술 하면 떠오르는 국내 대표적인 단체인 목우회가 있는데 두 분 모두 거기 회원으로 활동을 하셨죠."

위 멘트는 광주시립미술관 서영지 학예연구사가 전시설명회를 통해 들려준 말이지만 이 두 작가는 그 외에 1981년에 폐지됐던 국전에 꾸준히 공모해 입선과 특선을 두루 했다는 점 역시 공통점으로 꼽힌다. 서 학에서는 그런 근거로 이 두 작가가 회화적인 기법적인 면에서 탁월한 묘사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설명했을 만큼 각기 개성적이고 독자적이며 독보적인 화풍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두 작가의 평생 화업의 길을 추적하고 회화세계를 만끽할 수 있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전시장 중간에 나왔다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으나 중간에 퇴실이 어렵도록 했다. 이처럼 전시장 구조를 조금 변경한 것이다. 두 원로작가 작품을 모두 관람해야 나갈 수 있는 구조로 꾸몄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이)이 지난 10일 개막. 오는 4월 26일까지 미술관 본관 제1, 2전시실에서 '찬미와 탐미'라는 주제로 열고 있는 '2026 원로·작고작가전'이 그것으로, 김재형 원로작가와 정승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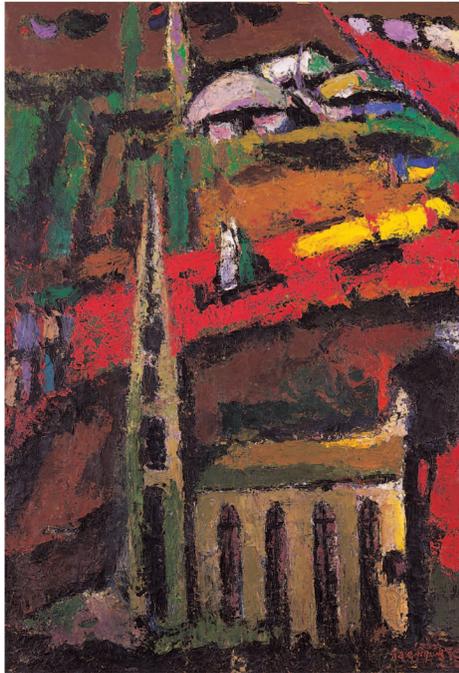
작고작가가 그들이다. 김 원로작가는 호남대에서, 정 작고작가는 전남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김 원로작가는 '신앙'(성경)을, 정 작고작가는 '설화'라는 서로 다른 서사를 바탕으로 작품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7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정승주 작고작가의 전시는 설화 작업에 집중됐다. 설화 작업이 나오기까지 조형적 모색을 하던 무렵부터 서울대 입학 후 가세가 기울다 보니 우울한 감성이 작품에 투영됐고, 재연적 사실주의 작업 전에 다양한 표현적인 작업을 보여주는 구성을 간파할 수 있다. 동물과 함께 교감하는 화풍 또한 발견된다.

한때는 비정형 회화가 주된 골격을 이루고 있던 영포르멜에도 잠시 전착했다. 고향이 목포여서 갯가 풍경이 회화에 등장한다. 그것이 국전에서 특선을 했던 '풍도'라는 작품이다. '인당수'라는 작업은 1985년부터 25년 동안 펼쳐지며, '견우와 직녀' 시리즈도 눈여겨볼 그의 작업이다. 그리고 '화향'이라는 명칭의 작업으로 이어진다. 화향은 1970년대부터 작고 전까지 이어졌던 작업이다. 따라서 그의 작업 기법의 변화와 조형적 흐름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특히 문학 베이스로 보여지는 작업 중 설화 작업은 정 작고작가의 회화적 특징의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설화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마음적으로 이런 작업을 해야겠다는 작업적 경향이 보이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여기서 보통의 작품들은 인물의 배치를 중앙에 놓는 경향이 많지만 주변부에 배치해 서사를 보여주고자 해 주목된다.

이어 걸음걸이가 불편함에도 직접 전시장을 찾은 김재형 원로작가는 한국화단의 거장인 오지호·임



김재형 작 '신앙적 풍경'



정승주 작 '선녀승천도'

작은 화백이 대학 은사님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래서 두 거장과 함께 했던 기억을 특별한 순간으로 표현한다.

지도를 받았던 순간이 특별한 순간이라는 설명이다. 대학 때 1년만 만나본 오지호 선생은 투철한 교육자적 자세를 견지했고, 임작순 선생은 그야말로 화가였는데 무궁무진한 색채와 감수성을 배울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2011년에 오지호 미술상 본상을 수상한 이후 어쩌면 스승 오지호 선생의 화업을 이제 조금이나마 이어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원로작가의 전시 시작은 종교 대통합

같은 니앙스가 풍긴다. 절간 풍경이 잇따라 등장하지만 조금 더 작품들을 둘러보면 가톨릭 신앙이 화폭에서 드러난다.

서 학예연구사는 이를 종교 대통합같은 느낌이 자 화업의 일지라고 표현했다. 이는 1980년대 중반에 신앙에 대한 작업을 본격화했는데 이런 사유들이 종교대통합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고 있다. 1980년 풍경작업에 전착했는데 그것이 절간 풍경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진으로 착각했으나 사실 절간 그림이었다. 화구를 들고 절에 가서 한달을 머무르며 같은 구도를 그리면서

견고한 화풍을 구현해낸다.

이를 견고한 화풍이라고 평가한다. 전시장 한편에 가톨릭에 귀의한 그의 '성체조배'라는 묵상 글에서는 빛으로 형상화한 십자가 잔상이 나타나도록 해 오래 기억에 남을 듯 싶다.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삶을 성찰해 온 두 작가의 작업을 함께 살펴봄에, 광주 미술사 안에서 이 이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개막행사는 26일 오후 7시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릴 계획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동남아 국수·커피 맛보고 아시아 여행 떠나자"

ACC배움인 강좌 내달부터 문화정보원 생활 문화 연계 '식문화 전파' 총 12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삼욱)은 아시아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2026년 상반기 'ACC 아시아 의식주 여행'을 3~5월 문화정보원 문화교육실1에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 중심의 다양한 문화교육을 제공하는 ACC배움인 과정으로 마련된다. 'ACC 아시아 의식주 여행'이라는 테마에 따라 아시아의 생활 문화와 연계해 시민들에게 아시아의 다양한 식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다.

ACC는 지난해 한·중·일의 국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동북아시아를 살펴보고, 커피의 문화와 역사를 중심으로는 서아시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올해는 싱가포르, 동티모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수와 커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맛있고 멋있는 여행을 떠난다.

아시아 식문화 분야의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아시아 국수 로드' 6회, '아시아 커피 로드' 6회 등 총 12회 운영한다.

먼저 오는 3~4월 진행되는 '아시아 국수 로드'에서는 이기중 교수가(전남대) 본인의 여행 기록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수에 대해 소개한다. 다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시아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2026년 상반기 'ACC 아시아 의식주 여행'을 3~5월 문화정보원 문화교육실1에서 운영한다. 사진은 아시아 커피로드 진행 모습.

러,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의 국수 기원과 역사의 흐름을 알아보고, 동남아시아 국가별 대표 국수의 독특한 특징 및 종류를 살펴본다.

이어 오는 5월 열리는 '아시아 커피 로드'에서는

'EBS 세계테마기행-나는 전설이다. 에티오피아' 다큐멘터리 출연 및 도쿄 외곽어대학 현대아프리카 지역연구센터 특별 연구원인 윤오순 박사가 세계사의 흐름 속에 담긴 동남아시아 커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다.

원두와 생두의 비교와 커피 가공 방식에 이르기까지 동남아시아의 독특한 커피 문화를 이해하고,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베트남 연유 커피뿐만 아니라, 동티모르 커피 등 이국적인 커피를 직접 내려 볼 수 있는 체험 시간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교육 참여자들에게는 그동안 축적해 온 문헌과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교보재가 배포된다. 조선이공대학교 RISE 사업과 연계해 문화관광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하나로 교육 주제별 전문 음식이 제공된다.

교육 참여자들은 김윤민 교수(조선이공대)와 호텔조리파티세과 학생들이 함께 만든 '싱가포르-호찌민 미, 베트남-퍼짜오, 인도네시아-뿌끼 등' 아시아 식재료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아시아 각국 음식을 맛볼 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수강 신청은 지난 25일부터 시작, 각 강좌별로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하면 된다. ACC는 올해부터 교육비를 무료로 전환해 운영한다. 수강료는 회당 5000원.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아르고, 담양 집필공간 지원
해남·진도 등 전국 총 6곳 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아르고(ARKO))는 2005년부터 작가들이 일정 기간 머무르며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문학집필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아르고는 수도권 중심의 창작 인프라를 넘어, 지역의 자연·역사·문화적 자산을 축적된 공간을 거점으로 삼아 한국문학의 창작 기반을 확대해 왔다.

현재 아르고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문학 집필공간은 강원, 경기, 전남 등 전국 6개 공간으로, 각 공간은 저마다의 장소성과 서사를 바탕으로 작가들에게 고유한 창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담양 소재 글을 남는 집을 비롯해 해남 토문재와 토지문화관, 에버딩 문학의집, 부악문학, 인송문학촌 등 총 6곳의 문학집필공간을 통해 문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담양 글남는집은 신진 작가의 성장이 초점을 둔 집필공간으로, 장육관·김호연 등 작가들이 기반을 다져왔으며, 전남 해남 토문재는 땅끝마을의 자연 속에서 김아름·홍성란 등 작가들이 집필을 이어온 서남해권 문학집필공간으로 자리매김했고, 전남 진도 시에 그리는 시와 예술, 섬의 특성이 결합된 복합 창작 공간으로, 강병철·정일근 등 작가들이 참여한 창작 거점이다.

또 강원 원주의 토지문화관은 박경리 작가의 문학 정신을 계승한 집필공간으로, 은희경·장강명 등 주요 작가들이 머물며 한국문학의 깊이를 확장해 온 창작의 산실이며, 강원 횡성의 에버딩 문학의집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자연 속 조용한 집필이 가능한 공간으로 김혜나·김보나 등 작가들이 사유와 집필에 몰입한 공간이고, 경기 이천 부악문학원은 이문열 작가의 문학적 사유가 깃든 공간으로, 이아라·이영광 등 작품 활동을 한 공간이다.

한편, 2026년 문학집필공간 입주작가 모집 일정은 공간별로 상이하다. 공간별 입주 일정, 신청자격 및 세부 운영 내용은 각 문학집필공간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문순태, 자전 소설집 '영산강 칸타타' 출간

2023년 나주 정착·타오르는강문학관서 집필

나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원로소설가 문순태씨가 자전적 소설 '영산강 칸타타'(오래된)를 출간하며 86년 인생과 영산강의 풍경을 한 편의 서사로 풀어냈다.

25일 시에 따르면 대하소설 타오르는강의 작가 문순태가 풀어낸 자전적 소설 '영산강 칸타타'가 출간됐다.

이번 작품은 작가가 2023년 나주로 정착한 이

후 매일 타오르는강문학관에서 두 시간씩 집필한 기록을 바탕으로 완성됐다.

'영산강 칸타타'는 하루의 시작을 직접 내린 커피와 함께하는 작가의 지독한 커피 사랑에 대한 역사와 나주에서 살면서 바라본 영산강의 풍경, 그리고 작가의 굴곡진 삶이 시, 에세이, 소설 등 형식을 넘나들며 진행된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을 떠나 떠돌며 살



아온 유년 시절 이야기, 광주로 재학 시절 김현승 시인을 만나 문학과 커피에 눈을 뜬 사연을 담담히 풀어냈다.

고등학교 독어교사를 그만두고 신문 기자가 된 과정과 유신시대를 지나며 기사 대신 소설로 시대의 부조리를 고발하기로 결심한 배경도 녹여냈다.

해직 기간에 작가는 창작에 전념하며 장성현 수물민들의 고향상실 한을 다룬 '징소리'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념 갈등과 화해의 길을 제시한 '철쭉재'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정년 퇴임 뒤에는 고향 마을에서 18년 동안 '소설창작 교실'을 열어 제자들을 길러왔으며, 대하소설 '타오르는강'(전 9권)을 완간하며 문학의 맥을 이어왔다. 최근에도 시집 '흥어', '타오르는 영산강'을 펴내며 창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타오르는강문학관'은 영산강을 무대로 한 대하소설 타오르는강을 테마로 조성된 문학관으로 2024년 10월 영산포에 개관해 나주 문학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주·조함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